

高麗青磁의 研究

鄭 良 謨

一 初期青磁의 상태

낮은화도에서 구워낸 토기에서 고화도 환원번조의 석기(炆器) 단계에 이르러 가면에서 자연히 생겨나는 재티가 고온의 토기표면에 내려앉아 태토속에 포함되어 있는 구사질과 합하여져 녹아붙어 자연유(自然釉)가 된다.

이러한 자연유의 성분은 인공적으로 만들어 낸 것을 쟁물(초기 것은 灰釉라고 함)이라 한다. 이것들을 토기표면에 바르고 고온으로 구워내면 회유토기(灰釉土器·일반적으로 회유토기라고 하나 정확하게 기술하려면 灰釉炆器라고 해야 할 것이다)가 되고 이 회유토기가 靑磁發生의 시초이다.

중국에서는 이 회유토기의 시원이 은(殷)대에 있었고 漢代에 들면서 유면(釉面)이 비교적 매끄럽게 되며 이러한 단계는 始源的 또는 初期的靑磁라고 할 수 있다. 六朝시대에는 이보다 발전하여 어느 정도 청자의 모습을 갖추고 백자도 만들기 시작하였으며 唐代에 靑磁가 세련되기 시작하여 晚唐五代에 질적으로 완벽한 청자가 되고 공예적인 높은 세련을 보였다. 中國에서는 이 즈음에 華南과 華北地方에 다같이 靑磁를 만들었지만 華北地方의 것은 粗質이었으며 五代까지 中國靑磁를 대표하는 것은 양자강 하류에서 널리 생산되던 청자 중에서도 浙江省 北東쪽 上林湖畔 일대를 중심으로 널리 퍼져있던 가마에서 만들어진 越州靑磁였다.

唐末五代의 越州靑磁의 胎土는 鐵分이 약간 섞인 白土며 유약도 鐵分이 약간 섞인 長石釉로 火度는 一、二五〇°C 정도에서 거의 磁化된 것으로 越州秘色靑磁로 널리 알려진 古典的 靑磁였다. 九七八年(太平戊寅)에 越國이 멸망하면서 월주요는 쇠퇴하고 越州窯의 기술이 이때를 前後하여 中國北方으로 擴散되어 各處에서 이와 유사하거나 그 地方 그 시대의 특징이 있는 새로운 靑磁가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 중 대표적인 예가 소위 北方靑磁라고도 불리는 耀州窯계통 靑磁와 北宋 汝官窯靑磁、龍泉靑磁、南宋官窯靑磁 등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 도자사상 가장 높이 평가되는 것은 一、二세기 초 북송 휘송년간에 만들어진 汝官窯靑磁이며 南宋官窯와 龍泉窯의 名品도 높이 평가된다.

우리나라는 七、八천년전(江原道 襄陽郡 鰲山里 신석기시대 유적지 발견 출토토기)경인 신석기시대로부터 흙을 빚어 번조한 토기를 사용하였으며(櫛木文土器) 三國時代에는 高火度로 번조한 토기를 만들었다(炆器). 삼국토기중에서도 新羅、伽倻土器는 質적으로 가장 우수한 것이어서 一、二〇〇°C 이상이나 올라가는 高火度 還元번조로 표면색은 회흑색이고 무쇠같이 단단한 것이었다. 이 시대는 厚葬하는 시대여서 많은 유물이 고분에서 出土되고 있으며 특히 신라, 가야고분에서는 土器製品이 매우 많아서 그 수량은 상상할 수가 할 만큼 대량 매장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들 토기는 器形이 다양하나 바닥이 등글거나 아니면 높은 받침이 있고 표면에 기하학적으로 구성된 음각 문양이 있으며 선의 흐름이 강하고 직선적이어서 祭禮의이고 儀禮的인 형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토기는 부장품이며 이러한 儀禮的 형태 이외에 단순한 器形의 生活用 토기가 있었으나 전체적인 흐름은 역시 직선주조의 것이었다.

이러한 三國時代의 토기를 거쳐 統一新羅時代에 이르러 土器에서 磁器로 이행되는 기반이 확립되었다. 통일신라시대 토기는 副葬用보다는 主로 實生活用으로 안정된 것이었다. 또한 이때는 토기표면에 유약을 입힌 綠釉·褐釉土器(鉛釉系)와 灰釉土器가 발달하여 施釉土器가 어느 정도 軌道에 오르고 있어서 토기에서 磁器(靑磁)로 이행되는 기반이 확

립되고 있었다. 자기에 대한 지식은 삼국시대로부터 六朝靑磁(매우 소량이지만 白磁器와 黑釉磁의 유입도 있는)의 유입이 상당량에 달하고 있었으며 九세기경으로부터 晚唐 陶磁器(主로 靑磁)와 그 기술이 海路를 통하여 우리나라 西海岸과 一部 南海岸에 많이 유입되어 初期靑磁인 소위 日暈靑系 청자(圖 1)를 만들기 에 이르렀다. 日暈靑 靑磁는 九세기 말경에는 이미 신라에서 번조한 것 같다. (주 ①)

中國浙江省 越州靑磁의 영향으로 생산하기 시작한 이 靑磁는 九세기 말경부터 비롯되어 十세기까지 계속되었다고 생각되며 日暈文系 靑磁窯址는 우리나라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에 분포되었으며 그중에서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 桂栗里 一帶에 집중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다. 이 초기 가마에서는 석기상태에서 처음 청자로 이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환원번조가 잘 되고 匣鉢을 사용한 본격적인 靑磁를 번조하기 시작하였으며 강진일대의 청자가 가장 세련되었다. 그 이유는 西南海岸의 靑磁窯中에서도 康津一帶의 靑磁窯가 다른 가마에 비해 보다 직접적으로 九세기 전반 東北亞 海上貿易의 王者였던 張寶阜의 해상활동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장보고에 의해서 중국청자의 輸入과 靑磁技術의 도입으로 서해안과 남해안에 청자번조기술이 전파되고 特別 강진은 장보고 해상활동의 中心이었던 완도와 가깝고 靑磁를 만들기 에 적합한 조건 즉 태토, 물, 나무 등이 풍부하였고 海上의 水運을 이용하여 제품이 경주와 기타지역으로 운반하기 편리하였을 것이다. 또한 고려 건국후에는 中央인 開京과 연결되어 官窯로 이어져서 여기 가마가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중국 南北方窯의 영향을 체계있게 정리 이용하였기 때문에 더욱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西南海岸 일대의 이들 初期靑磁中 그 質이 우수하고 發色이 이미 비색에 가까운 상태의 靑磁는 全南 康津郡 大口面 龍雲里 등 가마에서 번조한 것으로 대표된다. 初期靑磁中 그 質이 약간 덜 어지며 發色이 비색에는 훨씬 못 미치는 靑磁는 全北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 靑磁로 대표된다. 康津의 龍雲里 靑磁는 치밀하게 磁化된 상태이

며 發色은 暗綠色·綠色·黃褐色·綠褐色 등을 머금은 長石系의 發達된 靑磁釉藥이 사용되었다. 器形과 굽의 형태, 도지미와 그릇사이에 놓는 耐火土目 등에 처음에는 越州窯 영향이 가장 컸으며 이후 기형, 문양 등에는 耀州窯, 臨汝(汝官窯에 對한)窯 등과의 교류도 나타나 있었으며 還元번조로 火度는 一二五〇C를 넘는 우수한 질의 靑磁를 생산하고 있다. 高敞 龍溪里 靑磁는 磁化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으나 康津靑磁보다 치밀하지 못하고 환원번조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여 황색 갈색을 머금고 있으며 胎土와 釉藥도 精選되지 못하였으며 음각과 양각이 나오는 단계에서 단절되고 말았다.

初期靑磁와 같은 日暈文系 白磁를 生産한 磁器窯址로서는 京畿道 龍仁郡 二東面 西里와 반곡마을에 있는 가마자리가 매우 주목할 만하다. 筆者가 一九六〇년대에 발견한 이 가마는 초기 백자가 마로서는 유일한 것으로 靑磁 이외에 白磁도 이미 九~十세기경에 생산되었다는 分明한 증거가 된다. 따라서 이때까지(二十세기 중엽) 日人學者들이 초기청자 또는 원시청자로 불렀던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所藏 淳化四年銘 항아리(圖 2)도 白磁를 번조하려다 약간 淡褐色이 비끼 粗質白磁가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十一세기 말, 十二세기 초까지는 中國의 湖南 長沙窯·廣州 西村窯·定窯·磁州窯系 등과도 교류가 있어 鐵畫文이 생겨나는 등 靑磁의 종류도 다양해지고 白磁·黑釉 등 여러가지 도자기가 생산되며 器形·文樣·번조수법 등이 점차 高麗의 것으로 세련되어 가며 康津의 가마는 자꾸 확대되어 大口面의 龍雲里 桂栗里 沙堂里 水洞里 一部 七良面 三興里 일대로 확산되며 全北 扶安郡 保安面 柳川里 鎭西面 일대의 가마도 官窯形態의 대규모 靑磁窯로 발전하였다.

이러한 靑磁以外에 綠靑磁라고 命名한 一群의 磁器가 있다. 綠靑磁는 胎土가 거칠며 釉藥表面이 安定되지 못하여 우물우물하며 表面色은 고운 靑磁色이 아니라 綠褐色이다.

이 綠靑磁에 대하여는 從前까지 日暈文系 靑磁보다 先行하는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圓光大學의 尹龍二教授가 綠靑磁가 日暈文 靑磁보다 오히려

러 뒤에 나타났을 것이라는 매우 注目할만한 見解를 발표하여 이를 검토한 결과 매우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靑靑磁는 日暈文靑磁가 만들어진 연후에 地方의 수요에 대한 공급용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良質이고 磁化된 日暈文靑磁는 高價한 것이어서 慶州·開京등의 上流階層과 地方豪族들이 쓸 수 있는 것이었으며 靑靑磁는 一般庶民과 地方民이 사용한 것일 것이다. 실제로 良質의 우수한 靑靑磁를 生産하던 康津이나 扶安窯址에도 後에 粗質靑磁를 굽는 가마자리가 數個所씩 있어서 일부 민간의 수요에 응하였다고 생각되며 인천직할시 西串 景西洞과 全南海南의 山二面一帶에는 粗質의 靑靑磁만 생산하는 一大窯群이 있다. 또 이를 뒷받침해 주는 것으로 一九八三年과 一九八四年에 조사된 전라남도 莞島 앞바다의 靑磁는 모두 같은 海南山二面의 粗質의 靑靑磁였다. 海南郡 山二面 靑靑磁窯址는 數百個所였을 것이나 발견 당시 이미 海水로 붕괴되어 나가고 지금은 얼마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鐵書文靑磁·堆花文靑磁가 多量 발견되었으며 器形과 器種도 다양하여 대체로 이 가마가 十一세기로부터 十二세기 초경까지 이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으며 따라서 靑靑磁의 編年정립에도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이들 靑靑磁는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양상이 나타나 浙江省 越州窯에서 양질의 靑靑磁가 마늘가지 양상이 南쪽과 福建省 일부 廣東省에서는 粗質의 靑靑磁가 마늘가지 양상이 地方수요에 응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靑靑磁의 年代는 대략 十세기경으로부터 시작하여 十一세기 前半頃까지 많이 製作되었으나 점차 良質靑靑磁에 흡수되었으며 器形은 매접·접시류가 대부분이고 일부 방추리(缸)·매병·치마병·廣口長頸瓶·항아리 등이 약간 있을 뿐이다.

二 高麗靑磁의 발전기

① 十세기말—十一세기 전반기에 들어서면서 고려의 窯技는 바야흐로 숙련기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十一세기 전반기의 고려國情은 갖은契

丹의 侵攻을 막는다고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었지만 國子監을 비롯한 고등교육을 일으켜서 인재를 기르는데 힘썼고, 國史의 편찬과 大藏彫彫板을 시작하는 등 고려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자못 힘을 기울인 시대였다. 이러한 시대에 바야흐로 磁藝문화의 황금기를 맞이하고 있던 중국 宋과 이웃해 있던 고려가 그 자예의 비약적 발전계기를 마련했을 것임은 말할 것도 없다.

이 十一세기 전반기에 있어서 고려도자가 다다랐던 발전의 양상을 짐작할 수 있는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東蒙古 興安嶺에 있는 遼의 聖宗王 永慶陵(一〇三一年葬) 東蒙古 慶州 牢山城 遼代遺蹟에서 高麗의 陰刻靑磁片을 發見했었다는 齋藤菊太郎씨와 小山富士夫씨 보고가 그 예이다. 이것은 당시의 遼와 고려의 관계로 보아서 遼왕실에 보낸 고려왕실의 선물이었을 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이미 고려의 청자가 의국 왕실에 선물할 수 있을만큼 세련을 보였다는 실증이 된다. 말하자면 十一세기 전반기의 고려는 거듭되는 外侵 속에서도 자주성을 굳건히 지키면서 문화예술의 발전에도 소홀하지 않았던 것이다. 北宋과 고려 사이를 끊임없이 견제하는 遼의 입장을 고려가 잘 가늠해서 北宋의 漢族文化와 遼의 契丹의 접촉에서 얻은 실리는 큰 것이어서 고려청자의 발달도 바로 그러한 產物의 하나였다. 그 무렵에 있어서 고려청자의 발달도 바로 越州窯 窯技의 도입으로 이미 독자적 청자를 만들고 있으며 遼 문화와의 접촉관계에서 얻어진 고려공예의 변화도 또한 없었다고는 할 수 없다. 前記한 遼王 永慶陵室中에 그려진 壁畫四季圖(圖 3)의 일면은 고려 시대의 螺鈿漆器 또는 靑銅銀入絲공예품에 나타나는 蒲柳水禽文을 연상시켜 주는 점으로써도 주의를 끌 만하다. 또한 이러한 閑景은 고려청자양각으로써 또는 청자상감 들에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정경과 닮은 데가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徐兢의 『高麗圖經』의 記事 중의 한 대목은 고려에 投降해 온 契丹 사람 손으로 고려공예가 한층 발전했음을 뜻하는 것이지만 高麗史에 나오는 契丹人의 投降은 수백명에 不過했었다.

어쨌든 十二세기 초 무렵에는 아직도北宋陶磁를 따를 만한 것이 못미쳤으나 一〇세기 후반경으로부터 나타난 문양구성이 아직 차임새가 없는 음가 菊唐草文이 있는 末期形 日暈文形 굽다리의 대접류가 포함된다. 全南康津 龍雲里 桂栗里 등一帶 窯址의 파편들이 이때까지 이어졌고 雲里 一七號 窯址 등 파편에서 볼 수 있는 雙鸚鵡文 대접이나 草花陰刻文·陽印刻 浮彫文 같은 유형의 청자가 十一세기 중엽 무렵까지의 양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무렵 것임을 가리키는 編年 자료로서 또한 그의 예로는 己丑銘 青磁盤口瓶(一〇四九比定)을 들 수 있다(圖 4). 이 盤口瓶은 자못 밝은 灰青色系의 釉調를 보이고 있으며 砂床에서 구워진 것이었다. 이 무렵 도자가 어느 정도 量産체제에 있었으나 고려인기 鑪器好尙도 대단해서 일반 食器類는 아직도 鑪器의 비중이 컸던 것 같다. 이것은 『宋史』高麗傳 穆宗 八年(一〇〇五) 宋에 갔던 御事民官 侍郎 郭元이 「土民家皿悉銅爲之」라고 말한 대목이 있는 것으로 보아 도사는 아직도 널리 사용되지 못하고 있었고 더구나 冬期에는 銅器類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듯하다.

② 十一세기 중엽 이후반. 이상과 같이 긴숙련기를 거쳐서 고려의 도자는 十一세기 중엽부터는 세련기에 들어서게 되었다. 청자·백자의 器形과 意匠에 고려적인 풍모가 정착하기 시작했으며 그 유태의 質과 鑄造기술이 또한 진일보했던 것이다. 十一세기 중엽부터는 이러한 자연뿐만 아니라 고려사상에 있어서도 문화사적으로 하나의 전기를 이루는 때였다. 즉, 文宗王 治世(在位 一〇四六~一〇八二) 동안에는 遼·宋·고려사이에 비교적 평화가 유지되고 문물의 교류가 잦았으며 특히 宋과는 빈번한 사절 왕래를 통해서 인어진 폭넓은 北宋문화의 자극은 고려인 흥분화의 좋은 밑거름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한 北宋문화 접촉에 의한 대표적 인 예가 文宗王의 王子 大覺國師 義天의 渡宋이었다. 이 또한 시대가 배경이 되어서 성숙 도상에 있던 고려도자가 그 기술의 차이를 높이고 주체적인 세련의 궤도 위에 올랐을 것임은 능히 짐작되는 일이다. 이러한 무렵에 있어서 집고 넘어갈 자료들의 예를 들면 대강 다음

과 같은 것이다.

- (一) 癸丑銘青磁바릿대(圖 5) : 「癸丑年造上大聖持鉢」銘, 一〇七三 年 推定, (國立博物館 소장·東垣先生기증유물)
- (二) 靑磁退酒器 등 江原道 三陟郡 北坪邑 三陟里 高麗古墳출토 一括 遺物(圖 6) : 十一세기 말경 推定, (國立博物館 소장)
- (三) 白磁鐵繪盤口瓶 : 十一세기 말 推定, (金炯泰 소장)
- (四) 靑磁鐵繪草文盤口치마瓶(圖 7) : 十一세기 초—중엽 추정, (國立博物館 소장)
- (五) 白磁淨瓶(廣州郡 上山谷里 출토) : 十一세기 말 추정, (國立博物館 소장)

五〇년 간에 걸친 이러한 고려도자 세련기에 있어서 눈에 띄는 특색은 釉·胎 등 質의 차원을 높였고 器形과 그 마무리의 기법이 정제되었으며 기형은 아직도 北宋樣式에서 탈피하지 못한 것이 많았고 장식의 장 또한 北宋風이 남아 있었다. 그중에서도 자세히 살펴보면 월주요계의 영향은 거의 남아 있지 않으며 일부 北宋 耀州窯·磁州窯·定窯樣式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말하자면 이 기간 중에 비록 窯技에 있어서는 장족의 발전을 보였지만 고려 특유의 조형감각은 아직도 세련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시대는 바야흐로 다가오는 十二세기 전반기의 고려청자 절정기를 앞에 두고 北宋 도예기술의 차원에 발돋움하면서 독자적인 고려도자예술품의 창조를 착실하게 다져나갔던 시대였다는 느낌이 깊다.

三 高麗靑磁의 절정기

① 十二세기 전반. 순청자의 전성기인 十二세기 전반기 五〇년 동안은 고려도자로서 뿐만 아니라 한국 陶磁史의 절정기였다. 十一세기 후반기 이래 세련을 거듭해 온 청자와 백자의 유태가 모두 차원을 바꾸어서 한층 정제해졌다. 이것은 비단 도자기뿐만 아니라 이 무렵의 고려 공예와

회화, 그리고 인쇄술의 발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했으며 고려자기는 器形과 意匠 등 조형감과 기술에 분명한 國風化의 경향을 질계 나타내게 된 것이다. 仁宗元年(一一三三)에 宋徽宗이 보낸 使臣의 一員으로 高麗에 왔던 徐兢은 그의 著『宣和奉使高麗圖經』속에서

「陶器色之青者 麗人謂之翡色 近年以來制作工巧 色澤尤佳 豸貌出香亦翡色也 上爲蹲獸 下有仰蓮以承之 諸器惟此物最精絕」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선 高麗인이 靑磁色을 「翡色」이라고 했다는 것과 「近年以來 이 비색이 매우 아름답다」고 한 것, 그리고 「사자항로가 매우 정절하다」고 한 것에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당시의 宋은 徽宗 治世下에 문물이 꽃을 피우던 때였으며 그 고장에서 온 안목 높은 徐兢이 고려의 청자를 그처럼 찬양했음은 그의 놀라움을 뜻하는 것이 될 것이다. 특히 고려 사람들이 중국식의 호칭인 秘色(靑磁)를 버리고 고려의 청자를 翡色이라 일컫게 된 것은 高麗사람들이 그들의 靑磁釉色에 대해서 그만큼 긍지를 지니게 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그 무렵의 宋人學者 太平老人이 그의 著『袖中錦』속에서 天下第一을 다루는 속에 宋靑磁의 秘色은 빼놓고 고려청자의 翡色을 天下第一로 꼽았던 사실과 서로 뒷받침이 되는 기록들이다. 순청자 절정의 翡色은 施釉된 釉藥의 두께가 얇으나 釉藥內에 미세한 氣泡가 많고 翡翠玉과 같이 綠色이 약간 진하여 半失透性으로 胎土가 은은히 비취보인다. 그러므로 섬세한 음각이나 세밀한 陽印刻 등이 은은하게 나타나 한층 기품이 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보다 靑磁를 몇백년 먼저 만들기 시작하였으므로 그 最高의 절정기는 우리 고려청자의 절정기와 거의 같은 中國靑磁의 最高峰이라 할 수 있는 北宋 徽宗 年間의 汝官窯靑磁와 比較하지 않을 수 없다. 汝官窯靑磁는 기형차체도 엄정하며 예리하고 적절한 과장이 있어 냉엄한 기품이 있으며 유약은 얇으나 투명하지 아니하여 거기에 음각은 勿論이고 양각 문양도 있을 수 없으며 胎土 또한 유약을 通하여 전혀 비취보이지 아니한다. 우리청자의 비색은 모

시발이라면 중국청자는 비단발과 같아서 하나는 맑고 은은하게 투명하고 하나는 진하여 전혀 불투명하고 두꺼운 장막을 드리운 것과 같다.

十二世紀 전반기의 고려도자를 종류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一) 素文純靑磁

(二) 象形靑磁

(三) 靑磁陽刻・陰刻・透刻・露胎

靑磁에 아무런 문양이 없는 것이 素文이다. 靑磁중 第一 많은 것이 아무 문양이 없는 것이고 이것이 靑磁를 代表하는 것이며 따라서 靑磁는 翡色의 아름다움이 으뜸이라 할 수 있다. 靑磁를 動物이나 植物의 모양대로 만든 것이 象形靑磁이다. 고려청자 중에는 표주박, 연꽃, 죽순, 사자, 기린, 오리, 참외 등 수많은 象形靑磁가 있으며 이들은 自然스러움 그대로이며 한점도 과장하거나 과식한 것이 없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얻어진 조형 훈련이 오히려 고려청자를 자연스럽고 유려하게 가꾸는 하나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이다. 양각문양은 陽印刻이 있고 陽刻이 있으며 陽刻에는 陽刻과 半陽刻이 있다. 陰刻은 예리하고 유려한 선의 음각도 있으며 半陽刻과 같이 사용되기도 하여 선이 약간 굵은 것도 있다. 透彫는 그 수량이 매우 적으며 이것은 한국미술 전반에 흐르는 過飾을 좋아하지 않는 品性때문일 것이다. 露胎文은 아주 희귀하여 本人도 一例를 보았을 뿐이지만 靑磁釉藥을 문양대로 베껴내어 문양은 胎土에 鐵分이 배어낸 褐色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문양의 기명은 一二世紀 것인데 中國에서는 元代인 一四世紀前半에 비로서 이러한 露胎紋이 성장한다. 이때 고려청자의 모양은 一一世紀 後半경과는 다른 모습이다.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一一世紀 後半까지는 中國 越州靑磁의 모습, 定窯, 磁州窯, 耀州窯 등의 器形과 文樣이 남아 있어서 예리하고 文樣이 많고 번잡한 것이 있었으나 이때에 들어서면 유려한 선의 흐름이 있는 기형으로 變하여 마치 高麗歌詞와 같이 또는 高麗佛畫와 같이 그 선의 흐름이 유려한 기형으로, 연연히 되 기품이 있고 곱고 부드러운 형태로 變하였다. 또한 이 무렵 고려청자의 器皿을 살펴보면 瓶類・注子類・淨瓶・

香爐·香油瓶類 등은 先行하던 土器나 그 시대의 靑銅이나 銀製品에 그 意匠文樣과 더불어 典據가 있었던 것도 있으며 이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가 미국 보스턴미술관에 있는 高麗銀製鳳凰蓋注子와 국립박물관에 있는 同型的 靑磁獅子蓋注子(圖 8) 등과 비교해 보면 곧 알 수 있다. 그들의 번안은 벌써 一世紀부터 이루어지고 이때 二世紀에 와서 그러다 이 형태가 고려적인 아름다움으로 바뀐 것이다.

(四) 初期의 靑磁象嵌類들

청자상감은 一·二세기 前半에 발생하였다. 즉 仁宗王陵에서出土되었다고 전하는 청자일괄유물 중에 청자상감의 출토가 없었고 『宣和奉使高麗圖經』의 靑磁記事에 청자상감 이야기가 없었던 사실을 인용해서 중세 日本人 연구자들은 청자상감의 十二세기 중엽 발생설을 내세웠으나 그것만으로는 論據가 희미하다고 생각한다. 仁宗王陵의 출토품은 교란된 유물을 調査 收拾한 것이었으며 초기 象嵌은 그 수도 적었지만 초기 일주루 일반적인 陰刻文이나 陽刻文을 主文樣으로 하고 매우 제한된 어느 부분에만 從屬文으로 약간의 象嵌을 넣었던 것이 그 특색이었다. 예를 들면 靑磁牡丹唐草文碗(圖 9)이나 靑磁象嵌蓮唐草詩銘瓢形瓶(圖 10) 같은 것들이다. 牡丹唐草文碗은 內面 口緣에만 가늘게 象嵌 唐草文帶 하나를 들렀을 뿐이며, 靑磁象嵌蓮唐草詩銘瓢形瓶은 瓶身에 蓮唐草文을 陽刻한 다음 앞뒷면에 菱花形을 만들고 그 안에 詩銘만을 黑象嵌 했을 뿐이다. 실제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一九六三年 이후 발굴을 계속하고 있는 全南 康津郡 大口面의 靑磁窯址中에서 大口面 沙堂里 七號窯址 一帶의 조사에서는 바로 이 시대 즉 十二세기 전반에서 바로 중엽(一一五〇년)까지의 가마를 조사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高麗史』 世家 毅宗 十一年(一一五七)條에 보이는 靑磁瓦의 實體를 밝혔으며 十一세기 전반 靑磁에서는 第一 앞선 것으로 汝官窯 靑磁와 매우 유사한 형태의 花形托蓋 등이 나왔다. 이 일련의 잔류는 仁宗王陵에서出土되었다고 하는 一括遺物들보다 어떤 형태의 부분이 훨씬 과장된 것이었으며 耐火土는 물론 작게 불어 燔造하여 十一세기 이래의 오랜 燔造手法을 알

수 있다. 또한 仁宗王陵에서 발견된 一括遺物과 똑같은 器形·文樣의 器皿들이 있으며 이들이 수적으로는 가장 많고 바로 靑磁瓦를 伴出하는 破片層과 연결된다. 仁宗王陵에서 발견되는 同類의 靑磁에는 수많은 작은 象嵌片들이 간혹 발견되어 이 파편들을 보면 대접의 口緣部에 縱屬文으로 좁은 唐草文帶만이 象嵌으로 나타나거나 外部 또는 內部에 局限된 一部에만 상감문양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다. 象嵌技法은 청자의 胎土 위에 陰刻무늬를 새기고 그 새겨진 刻痕안에 赭土나 白土를 메꾸어 놓은 다음 施釉해서 구워내면 赭土는 黑色으로 白土는 白色으로 發色되는 것이다. 이 技法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나 잔손질이 많아서 時間이 많이 소요되고 잘못하면 文樣이 유약에 흡수되고 반대로 水裂이 너무 많이 생기거나 또는 터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 결과적으로 生産費가 많이 드는 것이다. 고려시대에 나타난 이러한 靑磁象嵌技法은 高麗人의 창의로써 이루어진 獨步的인 磁藝意匠이다. 이러한 象嵌기법은 아마도 그 시대 靑銅 그릇에 장식하는 銀入絲기법과 螺鈿漆器의 施文法에서着想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즉 全鑿弼씨 수김품에 있는 靑磁象嵌蒲柳水禽文淨瓶(圖 11)의 무늬와 국립박물관 靑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瓶(圖 12)을 비교해 보면 靑銅銀入絲淨瓶이 靑磁象嵌淨瓶의 器形이나 무늬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알게 된다.

(五) 靑磁辰砂彩

(六) 鐵畫靑磁

(七) 鍊理文磁

辰砂靑磁 陶磁器에 酸化銅顔料로 문양을 그리고 施釉하여 燔造하면 여러가지 색깔로 발색이 된다. 그 중에서도 磁器에 酸化銅으로 문양을 그리고 高火度로 還元燔造하면 붉은 發色으로 文樣이 나타나며 이것을 辰砂發色이라고 한다. 磁質(靑磁)에 辰砂로 鮮명한 發色을 처음 나타낸 것은 高麗였으며 그 시기는 十二세기 전반기였다. 酸化銅에 의한 綠色의 發色은 陶質의 低火度에서 손쉽게 可能한 것이지만 高火度の 磁質上에서는 매우 어려운 것이며 高麗靑磁의 辰砂發色은 世界最初의 개가였

으며 磁器에 施文하는 發色中 가장 화려한 것이었다. 그러나 高麗人은 이 辰砂發色을 절대로 남용하지 아니하고 그 초기에는 薰이나 香盒에만 약간 使用했을 뿐이며 象嵌의 盛期以後에는 象嵌과 併行하였으니 象嵌部位의 극히 一部에 使用하여 象嵌의 盛期以後에는 象嵌과 併行하였으니 象嵌中國에서는 靑白磁에 辰砂發色을 시도하여 十四세기 전반인 一三二〇년에 성공을 보기 시작하여 明代에 가서야 特히 宣德年間 白磁에 아름다운 眞紅의 辰砂發色이 성공한다.

鐵畫靑磁・堆花靑磁(堆花陰刻)・鐵彩靑磁——一〇세기에 이미 鐵畫文靑磁와 堆花文靑磁가 생겨나고 十一세기에 그 수요가 많이 늘어났으며 특히 鐵畫文이 더 많다. 鐵畫文은 中國 磁州窯系 白釉黑畫의 자극으로 생겨난 것이라고 보여 지는데 一說에는 廣東省의 廣州 西村窯와 관련되었다고도 한다. 초기의 產地로는 釜山 德浦里와 十一~十二세기 초경 요지로는 海南 山二面 요지를 들 수 있는데 還元燻造가 아닌 산화번조로 表面發色은 모두 갈색을 머금고 있다. 十二세기의 청자 절정기에는 康津과 扶安같은 中心窯에서도 만들었으며 還元燻造로 고운 靑磁色을 나타낸 것도 있다. 문양은 매우 다양하여 磁州窯系와 같이 主文과 從屬文이 있고 문양이 圖式化한 것이 있는가 하면 從屬文이 없이 主文樣만이 繪畫의 이면서 매우 대담하게 재구성한 고려 독자적인 것이 있다. 堆花文은 鐵畫文에서 우리가 만들어 낸 것이며 文樣構成은 主文樣만이 있는 것이 있으며 미숙한 것도 있으나 從屬文이 있는 경우도 主文樣을 회화적인 구성으로 하여 고려 특유의 文樣 구성을 하고 있다. 매우 희귀한 예이기는 하나 靑磁에는 어느 면에 白土를 粉粧하고 粉粧部位에 陰刻으로 花卉를 나타낸 것도 있고 堆花文 주위에 白土粉粧帶를 두르고 그 粉粧帶에 陰刻으로 唐草文 등을 나타낸 경우가 있다. 鐵彩는 靑磁胎土 위에 靑磁色을 바른고 그 위에 靑磁釉藥을 입혀 燻造한 것으로 發色은 대체로 黑色을 나타내는데 鐵分이 많은 안료를 바른 경우 赤褐色이 된다. 赤褐色의 경우 유약은 얇게 입혀진다. 鐵彩靑磁는 十一세기 후반경으로부터 十二~十三세기경까지 만들어졌는데 黑色發色의 경우에는 堆花文과 상

감문양이 있고 赤褐色發色인 경우에는 面象嵌文樣이 있다.

鍊理文 靑磁——굽고난 후의 청자의 태토는 灰色인데 이 靑磁胎土에 검게 되는 胎土와 회게 되는 白磁胎土를 한데 섞어서 가져 반죽하고 그릇을 만든 후에 질을 약간 깎아내면 그릇면이 검고 회고 회색이 섞여 마치 대리석과 같다. 이 위에 靑磁 유약을 입혀 구워내면 맑은 비색속에 있는 자연의 대리석으로 깎아 놓은 것과 같게 된다. 중국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唐代에 이미 이러한 연리문 자기를 만들었지만 검고 회고 회색 胎土가 모두 일정하게 層을 이루면서 파도같이 배합되어 너무나 人爲의 인 구성을 지니고 있다.

四 靑磁象嵌의 전성기(一~二세기 중엽)~ 一三세기 전반)

고려靑磁는 仁宗年間에 은은한 翡翠色의 아름다움과 어느 정도 예리한 형태에 의하여 기품이 있으면서 유려한 선을 지닌 아름다운 형태를 지녔다. 여기 유려한 선을 지닌 음각·약각·문양 등이 담긴 모습으로 그 절정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고려청자에 있어서 第一次의 절정기였으며 이때의 靑磁의 모습은 北宋의 汝官窯나 定窯 등과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다. 이들 北宋의 名窯中에서도 宮中에서 사용하는 器皿은 特히 中國의 特徵을 더욱 잘 나타내고 있고 이들 器皿中 우선 汝官窯의 靑磁는 釉色이 진하지 않으면서 불투명하여 침잠되는 듯한 깊은 맛이 있는데 이때 우리 靑磁의 釉色은 오히려 그보다 翡翠色이 더 고우면서 半透明하여 은은한 중 맑은 맛이 있다. 기형은 汝官窯와 定窯의 것이 보다에 리하고 냉엄함이 있는데 우리 청자는 부드럽고 유려함이 깃들여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려청자는 第二次의 절정기를 맞게 된다. 보통 절정기는 한번이지만 고려청자에는 두번의 절정기가 있다. 그 두번째의 절정기가 고려 一八代 毅宗年間이며 그 절정기가 조금씩 수그러들지만 대체로 蒙古가 침입하여 커다란 國難을 당하는 一二二〇년대까지 이어

친다고 할 수 있다. 毅宗年間에는 상감기법과 상감시문이 본격화되면서 청자의 유약이 더 맑고 투명하여지고 기형의 예리함은 內在的인 정신으로 숨겨지고 표면은 은은한 양감이 있는 중부드럽고 유려한 형태로 변모한다. 이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靑磁象嵌의 전성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즉 十二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고려 도자기는 청자상감 중심으로 급격하게 세련되어 양산되었으며 이러한 청자상감 전성시대는 蒙古軍의 來侵으로 고려의 국토가 그들에게 짓밟히고 고려 정부가 江華島로 들어가서 四〇년간에 걸치는 저항을 시작하는 一二二〇년대 무렵까지 약 八〇년간에 걸쳤던 것이다.

靑磁象嵌法은 이 기간 중에 다양화되고 청자 전체가 양산되었으며 특히 그 象嵌意匠 무늬에 있어서 十二세기 전반기에 陽印刻文樣 등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雲鶴文 등이 상감으로 문양으로 세련되는 등 독자적인 주제와 내용을 갖추게 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상감기법의 精緻化, 多樣化 때문에 필연적으로 靑磁釉의 투명도가 추구되었던 것이다. 즉 상감무늬가 세련될수록 그 투시 효과에 신경을 쓰게 되었고 이러한 투명도의 추구 때문에 오는 부작용 또한 나타나게 되었다. 그것이 즉 氷裂이라고 일컫는 식은데의 일반화였다. 즉 이 청자상감 전성시대의 釉調는 釉質의 硬度가 높아짐에 따라서 氷裂이 釉面全體에 분포되는 것이 일반화되었으며 이것은 十二세기 전반기 순청자 전성시대의 氷裂이 없는 釉調와는 대조를 이루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의 古越州窯系 汝官窯 등의 중국청자 질감과는 점점 거리가 더 생기게 되었으며 그것은 釉의 질감뿐만 아니라 色感에도 고려청자 특유의 風格이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이러한 청자상감시대를 보여주는 例作中の 하나가 靑磁象嵌寶相華文 대접(圖 13)이다(國立博物館 소장)。 이것은 一一五九년에 돌아간 文公裕의 무덤에서 그 墓誌銘과 함께 나온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一一五九년 무렵 또는 그보다 약간 더 저슬러 올라가는 시기의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이 대접의 상감기법에서 보여준 다양성과 그 세련도로 보아 청자상감기법이 개발된 후도 한참 지나서야 비로소 도달할 수

있는 경지라는 느낌이 든다. 이보다 四十년 뒤늦은 고려 明宗王(一一九八) 智陵에서 나온 靑磁象嵌荔枝文 대접(圖 14)은 유약과 상감의 세련도가 文公裕墓 出土 대접보다는 못하지만 이 두 자료가 고려청자의 編年자료로서는 매우 중요한 유물이다. 이 두가지가 모두 釉의 투명도가 높고 맑은 灰靑色이며 文樣과 文樣의 布置가 아름다운 것으로 보아 청자상감이 오랫동안 계속 精絶을 다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十二세기 후반기의 질작 예로서 두드러진 것은 靑磁象嵌雲鶴文 梅瓶(潤松美術館 소장)을 비롯해서(圖 15) 국립중앙박물관의 여러 注子, 瓶·梅瓶類들이다. 이들은 그 문양이 사실적인 문양을 약간 圖式化한 것이나 자연의 윤치가 감돌며 釉의 투명도가 높고 청정한 灰靑色이며 설관 氷裂이 시원스럽게 분포되어 있다. 이 청자상감 전성시대 八〇년간의 후기라고 할 十二세기 말부터 一二二〇년대에 걸친 三十年은 황금기였던 一二세기 후반기의 여세를 몰아서 청자상감이 그 精緻度를 계속 유지하던 때였지만 象嵌意匠이나 器形에 나타난 곡선의 성격에는 약간의 시대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즉 釉의 清雅度에 약간의 變調가 나타나서 유약이 좀 두껍고 그 색택이 좀 진하여졌으며 文樣의 單位가 작아지며 過密化되는 경향이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일면에서는 散漫化하는 경향도 엿보이기 시작했다. 器形에서 오는 곡선이나 象嵌意匠에서 볼 수 있었던 선률적인 아름다움이 차차 鈍化되고 圖式化가 일층 더 빠르게 진행되어가는 경향이 있다. 말하자면 一二세기 고려청자가 지녔던 美의 격조에 약간 弛緩의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나 이러한 징후는 그다지 심한 것도 아니고 또 전반적인 것이 아니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러한 분위기는 바로 그 무렵의 國政의 반영일 수도 있고 그러한 환경이 그러한 방향으로 나타났던 것이 아닌가도 싶다. 이러한 변화는 비단 도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무렵의 금속공예나 조각에도 비치기 시작했던 것 같다.

純靑磁는 靑磁象嵌 전성기간과 그 이후에는 점차 이체론은 존재였다.

이 기간 동안의 純靑磁 자료로서 매우 중요한 것은 國立博物館이 발굴조
 사한 靑磁窯址로 이 가마에서는 靑磁瓦(圖 16)도 燔造한 高麗靑磁名窯址
 이다. 高麗靑磁瓦의 존재에 대해서는 『高麗史』 毅宗世家 十一年(一一五
 七) 四月初條에 왕이 왕궁 동쪽 이곳에 새로이 宮苑을 만들고 그곳에 세
 운 養怡亭에 청자를 덮었다는 기사로써 짐작되어 왔었다. 국립박물관이
 발굴 조사한 全南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의 靑磁窯址가 바로 그 養怡亭
 에 덮였던 靑磁瓦를 구워낸 가마였다는 것은 開城滿月臺에 있는 고려
 왕궁터에서 출토된 靑磁瓦와 같은 靑磁瓦片이 많이 출토된 사실로써 증
 명이 되었다. 이 沙堂里窯址에서는 靑磁瓦뿐 아니고 靑磁타일류의 파편
 들도 다양하게 나왔으며 그것들 중에는 청자상감과 素文이 섞여 있어서
 고려 궁실의 호사스러움을 짐작할 수 있게 되었고 아울러 고려청자의
 편년에 있어서도 배놓을 수 없는 자료가 되었다. 一二二〇년대 이후 고
 려말까지는 고려도자 쇠퇴의 내리막 길이었다.

五 高麗靑磁의 쇠퇴기

蒙古軍의 來侵으로 수십년 간에 걸친 사회불안과 경제의 혼란으로 그
 처럼 정기어렸던 고려청자의 기품이 흐트러지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양
 상은 元宗代까지 계속되었다. 이러한 쇠퇴의 그림자는 청자의 胎土와
 燔造手法 그리고 장식 意匠에 이르기까지 고루 미치게 되었고, 이것은
 지나간 영광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운명적인 그늘처럼 느껴지게 되
 었다. 全國土가 蒙古軍에 유린당하고 元宗代에 蒙古에 굴복하였다. 이
 와 前後하여 우리 領土를 들어 蒙古에 投附하는 반역자와 王權을 專橫
 하는 逆臣이 수없이 興廢하는 중 王世子는 人質로 王自身까지도 蒙古에
 수시로 불러가는 등 國權은 흔들리고 國家도 극도의 혼란 속에 忠烈王
 이 元帝의 附馬로서 王位에 올랐다. 억지에 의한 王權의 확립으로 혼란
 이 쉽게 安定된 것은 아니나 忠烈王때의 高麗靑磁는 一時 그 質이 좋아
 졌으며 그보다는 고려청자가 일부 기형과 文樣이 變化하는 하나의 전환

점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忠烈王以後 元세력의 지배체제가 안정되
 면서 사회는 다시 평정을 되찾고 고려의 磁藝도 활기를 되찾는 듯 했었
 지만 결국은 과거의 軌範에서는 점점 멀어져만 갔다. 청자상감意匠은
 대범해지고 거칠어졌으며 그 표현에는 밀도가 줄어들기 시작했고 象嵌
 意匠의 일부를 일정한 印形으로 押捺해서 손쉽게 처리하는 등 매우 절
 제없는 풍조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것은 그다음 시대에 등장하는 조
 선시대의 印花文상감기법의 시원이 되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조선조
 초기로 넘어가는 印花粉靑沙器 意匠의 前兆의 인식이었던 것이다. 살펴
 보면 一二三〇년대부터 고려조가 쇠망해 버리는 一三九二년 무렵까지
 고려의 磁藝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간단없이 그 하강선을
 더듬었다. 고려청자의 두드러진 곡선의 아름다움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흐트러져서 우아 단정하기 보다는 혼란한 사회에 알맞는 무겁고 둔한
 卽 실험성과 기능만을 생각한 안이한 便化의 造形으로 바뀌어 가는 경
 향이 짙어만 간다. 一六〇년 동안에 걸친 긴 경로를 하나로 묶어서 쇠퇴
 기라고 본 것은 고려의 國情이 그러했듯이 고려의 磁藝 또한 고려의
 국운과 너무나 닮은 경로를 지루하게 다다랐기 때문이다.

이상은 쇠퇴기를 개관해 본 것이며 이 기간을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
 다. 靑磁의 衰退期는 대략 三期로 區分할 수 있다. 우선 第一期는 몽고
 가 침입하기 시작한 一二二〇년대 말부터 元宗代까지인 一二七〇년대
 中頃까지이며 第二期는 忠烈王, 忠宣王, 忠肅王까지, 第三期는 一三三〇
 년경부터 고려말까지이다. 이 쇠퇴기의 第一期에 있어서도 여전히 청자
 상감은 그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고 어찌보면 오히려 전보다 한층 양산화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쇠퇴기中 第一期의 最後를 장식하는
 편년자료로서 己巳·庚午(圖 17)·壬申·癸酉·甲戌·壬午 등 干支銘이
 들어있는 일련의 기명이 있다. 이 기명들은 완형으로도 고려고분내에서
 더러 발견되며 破片으로는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 七號窯址 一
 帶에서 많이 발견되었으며 그중 己巳銘 기명이 一九八〇년대 초반부터
 忠南 大川 앞바다에서 인양된다는 소문이 있었고 실제로 매장문화재로

서도 신고된 바가 여러번 있었다. 이러한 사안을 감안해서 文化公報部에서는 一九八七年 六月 조사단을 大川 앞바다의 竹島 일대를 탐사한 결과 四〇여점의 己巳銘 접시와 대접을 인양한 바 있다. 이 일련의 유물은 현재 상세한 정리와 분석을 해보아야 더욱 정확한 시대편년 자료가 되겠지만 「己巳」年은 元宗 一〇年 一二六九년이라고 생각된다. 이들 靑磁象嵌己巳銘 등 器皿에서 볼 수 있듯이 一三세기 후반에는 이미 象嵌文樣이 밀도를 잃었고 대법한 표현으로 바뀌었으며 器形도 口邊에 外反이 없이 약간 내만 되쳐로 바로 올라간 모양만이 있고 굽다리도 약간 높고 넘적하게 되었으며 구사눈이 커져서 그 자국이 깨끗하지 못하다. 이러한 대접의 형태는 一三세기 후반의 고려청자가 변모해가는 자취를 나타낸 새 양상이었다.

第二期는 元文化와 元을 通한 西域、西方文化의 영향이 간접적으로 고려문화에도 영향을 미친 때이다. 고려 도자기도 예외는 아니어서 기형중 대접의 口緣部가 外反된 것이 나타나며 扁壺(圖 18)가 생겨나고 문양에도 새로운 牡丹唐草가 鳳凰唐草、花卉唐草文 등이 새로 등장하는 등 고려청자에 여러가지 變化가 나타난다. 이러한 變化는 몽고가 침입해서 국토를 유린하고 物資를 약탈할 때부터 조금씩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忠烈王以前까지는 그 영향이 미미하였으며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卽 그 이전에는 「己巳」「庚午」 등 명문이 들어있는 대접에 주로 보이는 문양과 그 기형이 고려청자의 모습이었으며 變化가 있었다면 거기에 매우 희귀하나 새로운 牡丹唐草文이 나타나기 시작한 단면가 六角접시가 등장한다 단면가 印花文樣이 많아진다 단면가 陽印刻이 점차 늘어났다든가 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이때는 종전까지 고려인들이 개발만 하고 잘 사용하지 아니하였던 靑金靑磁와 辰砂靑磁도 元과의 관계에서 부득이 만들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 같다. 그 실례가 靑磁象嵌金彩樹下猿文扁壺(國立中央博物館 소장)이다(圖 19)。 이것은 『高麗史』 趙仁規傳 속에 고려왕실이 元世祖에게 보낸 靑金磁器에 관해 元世祖와 趙仁規와의 問答내용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것은 『高麗史』 忠烈王

二三年(一二九七)條에 보이는 靑金磁器에 관한 기록과 더불어 대체로 두 가지 면에서 주의를 끄는 작품이다. 첫째는 이 扁壺가 開城 滿月臺의 왕궁터에서 출토된 것으로서 항아리의 앞뒤를 평편하게 만든 고려항아리의 새 器形이며 이것은 아마도 이제까지의 梅瓶의 유행에 대체되는 의의를 지니고 있는 까닭이다. 즉 이 무렵이 되면 이제까지의 梅瓶의 수가 줄어들면서 이러한 扁壺가 새롭게 등장했고 이제까지의 梅瓶이 어떤 이상적인 器形이었던데 비해서 扁壺는 매우 안정세를 보인 기능적인 면만을 생각한 器形을 갖추고 있다는 점 등 그 시대상을 엿보여주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둘째는 이 扁壺에는 象嵌意匠의 주위를 배두른 小環文帶를 印形으로 捺押해서 삼각 工程이 간편화된 점, 그리고 앞뒤의 象嵌圖文이 精緻하다기 보다는 대법해진 특색이 드러나 있으며 특히 삼각문양의 釉表部位와 그 언저리에 金彩로 장식한 점은 이 靑金靑磁가 一三세기 후반기에 생겨난 새 솜씨였음을 실증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는 一部 王室이나 귀족의 사용 또는 元에 보내지는 것이겠지만 一時 청자유약도 조금 타해지긴 했으나 還元이 잘되어 고운 발색을 하고 있으며 辰砂靑磁도 전에 비해서 많아졌으며 釉藥이 安定된 실증으로서는 이때 만들어졌다고 생각되는 靑金靑磁(진기 扁壺와 靑金靑磁대접) 國立中央博物館 소장)와 辰砂靑磁로 미루워 짐작이 되며 또한 이때 등장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기형과 새 문양의 기명에는 일시적이거나 새련된 기형과 문양과 유약의 器皿이 있다.

第三期에 들어서면 청자가 보여주는 퇴보적인 변화는 한층 분명해졌으며 또 가속화되어 갔다. 元과의 관계는 물론 고려 정치·사회·종교의 혼란으로 고려청자는 忠烈王 때의 一時的 安定이 있고 난 다음 극도로 퇴보의 一路를 걷고 있었다. 기형은 점점 둔하고 선은 흐트러졌으며 그릇은 두껍고 무거우며 문양은 본래 문양이 지녔던 자연스럽고 사실적인 의미를 전혀 상실하여 단순화되고 이상하게 변형된 인화문이 늘어나고 전혀 알 수도 없고 의미도 없는 선문양을 흐트러진 채로 자꾸 답습하여 내려가다가 결국 몇개의 단절된 글썽된 선으로 나타난다. 빈조시

의 받침도 一四세기 중엽에 이르면 모래받침과 胎土비집눈이 생겨어나고
 구사눈은 점차 없어져서 굽바닥은 둔하고 지지부진하게 된다. 이러한 쇠퇴
 기의 고려청자가 조선조 전기 분청사기의 모체가 된다. 이 第三期의 편
 년자료는 全南 康津郡 大口面 沙堂里窯址에서 同一層位에서 「至正」銘과
 「丁亥」銘과 편이 같이 나왔으며 또 이층위에서 많은 파편자료가 出土되
 어 一三四七(忠穆王三年) 當時 靑磁의 모습을 살필 수 있다. 恭愍王妃
 魯國大長公主의 墓號인 「正陵」銘이 들어 있는 접시과 편 하나와 완형의
 대접(圖 20) 하나가 있다. 이는 一三六五年이라고 생각되므로 當時 靑磁
 모습의 一部를 살필 수 있다. 이외에 「乙酉司醞署」銘 靑磁象嵌柳文梅瓶
 (一三四五 推定(圖 21)) 「良醞」銘 靑磁象嵌柳蓮文扁壺(一四세기 후반) 江
 原道 原域郡 令傳寺址 三層石塔에서 「洪武二二年 戊辰(一三八八) 四月」
 銘塔誌와 함께 發見된 靑磁象嵌線文대접(圖 22) 등이 있다. 이들 일련의
 편년자료를 토대로 이 기간의 청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
 술한 바와 같이 그릇은 두껍고 둔하고 무겁다. 還元燔造가 보장되지 아
 니하여 점점 翡色은 褐色과 黃色으로 변하고 거기에 胎土까지 나쁘고 거
 칠어가니까 黑色까지 곁들여 지고 기포가 胎土속에 들어가 부풀어 오르
 는 경우도 있다. 文樣도 이미 설명했지만 전반적인 구성이 커다란 매병
 같은 경우엔 主文樣이 줄어 들고 從屬文이 커지며 대접같은 경우엔 印花
 文만 늘고 나중에는 印花文도 몇개만 남고 몇개의 선만 남는다(前記令
 傳寺塔內發見 靑磁象嵌線文대접)。梅瓶의 경우 우선 口部가 角이 지고
 예리하던 것이 조금 완만한 나팔같이 되었으며 肩部는 긴장되다 다시
 이완되다가 끝에 가서 다시 긴장되며 허리는 길게 되었다가 다시 잘룩
 해지며 결국 조선조 초기 분청사기 梅瓶으로 이어져 구비치는 힘으로
 변한다. 문양은 치졸하고 단순하게 변하여 치밀하거나 밀도는 전혀 없
 이 되고 從屬文 중에서도 下部 文樣帶가 매우 커진다. 이러한 변화의 과
 정은 一二세기 중엽의 梅瓶과 편과 같이 出土된 一四세기 중엽의 靑磁
 象嵌柳蓮文梅瓶과 比較하면 금방 알 수 있다. 대접 등 적은 器皿은 主
 文과 從屬文 등 질서 정연한 구성이 흐트러져서 主文 從屬文의 區分이

없이 치졸 소략해지고 만다. 單位 象嵌文 중 雲文은 결국 點文으로 변
 하였으며 菊花文은 툭니바퀴처럼 되었다가 小形의 集團 툭니바퀴가 되
 고 툭니가 달아서 작아지고 결국 원과 같이 된다.

고려자기는 단군중배 전통적인 土俗信仰과 佛敎·老莊·風水圖讖思想
 등을 배경으로 청자를 주로 생산하고 세련시켜 一二期기 전반에 翡色純
 靑磁로서 類例가 없는 독특한 특색을 나타냈고 一二期기 중엽 釉藥을
 맑고 밝게 발전시켜 靑磁象嵌으로서 다시 한번 꽃을 피웠다.

고려도자기 중에서는 靑磁가 특히 많이 생산되고 세련되었다. 토기에
 서 청자로의 이행은 인류문화 발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으나 고려시
 대는 그 자연과 시대적 배경으로 靑磁가 특히 많이 생산되고 가장 세련
 되었다고 생각된다. 고려청자는 은은하면서 맑고 명량한 翡色·彫刻刀
 의 힘찬 線을 지니고 器物과 一體가 된 詩的인 운치가 있는 象嵌文樣·
 流麗한 선의 흐름을 지닌 형태 한 두점 액센트로 강한 색(辰砂發色)을
 쓰는 이외에 모든 색을 담담하게 구사하는 등이 그 특색이며 아름다운
 이다.

〈參考文獻〉

- 崔淳雨, 『韓國의 美 四, 靑磁』, 中央日報(季刊美術), 一九八五.
- 『高敞雅山谿水沒地區發掘調査報告書』,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研
 究所, 一九八五.
- 『莞島海底遺物』, 文化財管理局, 一九八五.
- 崔淳雨, 陶磁器 『韓國古美術』,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編, 光明出版
 社, 一九七四.
- 高麗時代の工藝 二, 陶磁工藝, 『韓國藝術總覽——概觀篇』,
 大韓民國藝術院, 一九六四.
- 『韓國美術全集 九, 高麗陶磁』, 同和出版社, 一九七五.
- 『康津沙堂里窯址出土靑磁瓦』, 『美術資料 九』, 國立中央博物

館 一九六四。

、「癸丑銘青磁大聖持鉢」、「考古美術 五—一」、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四。

、「仁川市景西洞綠青磁窯址發掘調査概要」、「考古美術 六—六」、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六。

、「康津沙堂里窯址出土高麗青磁博」、「考古美術 八—一二」、考古美術同人會、一九六七。

、「高麗青磁瓦」、「美術資料 一三」、國立中央博物館、一九六九。

、「三陟郡北坪邑三和里出土 高麗時代遺物一括」、「考古美術 一 二九・一三〇」、韓國美術史學會、一九七六。

、「高麗青磁와 青磁象嵌發生의 側面的 考察」、「澗松文華 六」、澗松美術館、一九七四。

小山富士夫、朝鮮陶磁文獻目錄、『陶磁講座 一三』、雄山閣、昭和一一

、高麗の陶磁、『世界美術全集 中國 III』、平凡社、昭和二六

崔淳雨・小山富士夫、「高麗・李朝の 陶磁を語る」、「東洋陶磁 三」、東洋陶磁學會、昭和五一。

香本不苦治、『朝鮮の 陶磁と古窯址』、雄山閣、昭和五一。

野守健、『高麗陶磁の研究』、清閑舎、昭和一九。

長谷部樂爾、『陶器講座 八』、朝鮮 I・高麗、雄山閣、昭和四六。

Compertz, G. St. G.M., *Korean Celadon and other wares of the Koryŏ Period*. Faber and Faber 24 Square London. 1963.

① 從前に 日人學者들은 우리나라 青磁의 發生에 關하여 梨花女子大學校博物館所藏「淳化四年銘」항아리를 들어 九九三년에 初步的・源始的 青磁로 出發했다. 一 세기에 들어서서 비로써 青磁다운 青磁를 만들기 시작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學問의 進展에 따라 이러한 學說은 正確 잘못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먼저 우리나라에서 一九六二년 以後 국립박물관에서 우리나라 가마(窯址)터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시작하여 青磁가마에 대한 조사도 二〇여년 以上 계속하고 있다. 그 결과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一帶의 青磁가마터 조사・仁川直轄市 西串景西洞 綠青磁가마터에 대한 조사등

으로 初期青磁에 대하여 새로운 視角에서 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다.

그러던중 이웃 中國本土와 日本 등지에서도 여러가지 조사가 진행되어 우리의 초기청자에 대한 조사에 여러가지 근거를 더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西南海岸에는 初期青磁가마가 많다. 그 代表的인 가마는 全羅南道 康津郡 大口面과 七良面 帶에 있으며 이외에 북쪽으로부터 헤아려 보면 대략 다음과 같다. 黃海道 松禾郡 雲遊面 周村, 京畿道 高陽郡 元堂面 元興里, 京畿道 楊州郡 長興面 부곡리, 全羅北道 鎭安郡 聖壽面 道通里, 全羅北道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 全羅南道 高興郡 豆原面 雲袋里 등이다. 이들 가마에서는 대

접・점시를 위주로 여러가지 生活用器를 만든데 그중 대접 한종류의 형태와 굽의 모양이 中國 浙江省 東北部에서 번조되는 越州窯産 青磁대접과 거의 같다는데 視點을 맞추어 본 것이다. 이 대접의 형태는 전기 사자를 뒤집어 놓은 것과 같이 側斜面이 直線으로 편고 굽나리 밑이 넓적하다. 또한 이때

越州窯에서는 그릇과 도지미(陶枕) 사이에 굽고 난 다음에 잘 떨어지도록 耐火土를 받혀서 燻造하였다. 中國 側報告書에 의하면 이들 소위 日暈文(해무리문) 대접 등은 八세기 以後부터 번조하기 시작하여 一〇세기 前年까

지만 있었다고 한다. 또한 日本에서는 그때 이러한 日暈文 青磁를 輸入하여 사용했는데 一部 그 土器를 倣製하여 사용했었으며 土器로 방제한 것도 대략 一〇세기 中葉까지였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도 中國 越州窯 青磁의 日暈文 大접과 거의 똑같은 青磁대접을 만들면서 後代에 만들

었을 이유가 없다. 九세기 전반에 장보고에 의한 활발한 海上活動과 우리나라 自體內의 여러가지 여건이 施釉 妬器에서 青磁를 使用할 수 있는 社會로 發展되어 가고 있었으므로 越州 青磁의 기술을 바로 新羅에서 받아들여졌다

고 생각된다. 또한 그렇기 신라조정이 혼란하였지만 장보고의 세력이 신라 조정과 맞먹을 수 있을만큼 成長하였다는 것은 海上活動에서 얻어진 富의 成長이 컸지만 이에 따른 그 一帶의 경제・사회的 成長이므로 지방의 開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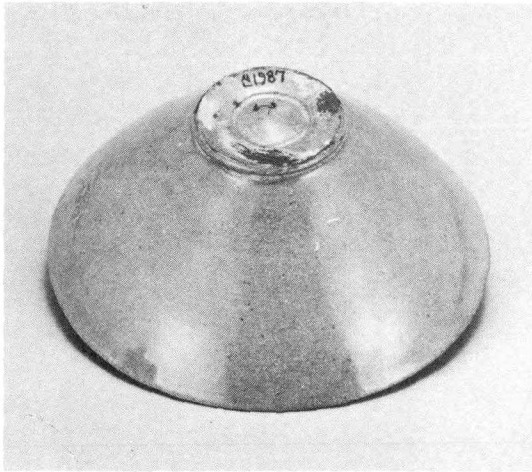
되어 慶州 쪽보다도 완도를 中心한 西南海岸일대가 오히려 먼저 青磁를 쓸 수 있었던 青磁使用의 尤구가 컸었을지도 모른다.

新羅 青磁에 대한 것은 앞으로 좀더 근거를 보완해야 되겠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를 주장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日暈文 青磁가 많이 발견되는 가마에서는 그곳에 문양이 없다. 日暈문양이 조금씩 발견되고 그 굽자리가 退化된 상태로 발견되는 가마터에서는 음각문양이 조금씩 나타나

며 좀더 지나면 陽印刻文樣도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한다. 中國 側 보고에 의하면 唐代에는 越州窯 青磁에 文樣이 거의 없으나 唐末・五代에 가서야 文樣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初期 日暈文 青磁가마에

서는 문양이 없으며 그 시원을 九세기 中頃까지로 소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우리나라 학계에서 종래 高麗 初土器라고 생각하던 土器가 경

주안압지 발굴조사 이래로 그 원년의 그릇됨을 是正하여 統一新羅時代로 정정하고 있다. 이들 統一新羅土器의 기형과 거의 똑같은 기형의 청자가 초기 청자가마에서 발견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크고 작은 전접시, 油瓶·귀가 달린 작은 항아리 등이다. 또한 이와 유사한 크고 작은 전접시·커다란 대 접의 뚜껑 등이 유기로서 안압지에서 발견되는데 이들 또한 초기 청자그릇에 있는 유형이다. 끝으로 안압지에서 많은 도자기 파편이 나왔다. 이를 층위별로 수습하지 아니하고 한데 모아 놓은 것이 四〇상자쯤 되었다. 一九八四년과 一九八五년에 걸쳐 本人이 이를 分類하여 본 결과 조선조 중기의 백자 파편이 제일 많고 다음 약간의 분청사기편, 약간의 조선 전기 백자편 또 약간의 우리나라 청磁片과 中國의 青磁·白磁片이 있다. 中國青磁와 白磁片은 文樣이 없는 越州青磁 日暈文窠 파편이 第一 많고 기타 청자편 약간과 邢州白磁라고 생각되는 역시 日暈文窠 白磁片과 기타 白磁 파편이 약간 있다. 고려청자 파편은 日暈文窠 청자 파편 약간과 이와 同時代의 파편 약간과 이보다 훨씬 시대가 뒤지는 상감발상 以後의 파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안압지는 신라 太子宮으로 알려졌으며 고려중기 以後로 추정된 파편들로 미루어 보아 신라 멸망 以後에는 폐허였으며 고려중기 以後로 추정된 파편들로 미루어 들어섰으며 조선조 중기 이후에 민가가 많이 들어섰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따라서 안압지에서出土된 中國青磁 日暈文窠 파편과 우리나라 青磁日暈窠 파편은 거의 同時代이거나 우리나라 青磁가 그러한 영향으로 약간 뒤에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이러한 青磁의 수량은 안압지에서 발견된 土器에 비하여 극소수에 불과하지만 中國青磁·白磁도 수입품으로 귀하였을 것이고 우리나라 青磁도 처음에는 귀하였을 것이다. 또한 이것도 文化의 전파와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中國陶磁器가 湖南·湖西地方에서는 많이 발견되는데 신라지역에서는 거의 발견예가 없는 것과도 상통된다고 생각한다.



(圖 1) 日暈窠青磁대접 國立中央博物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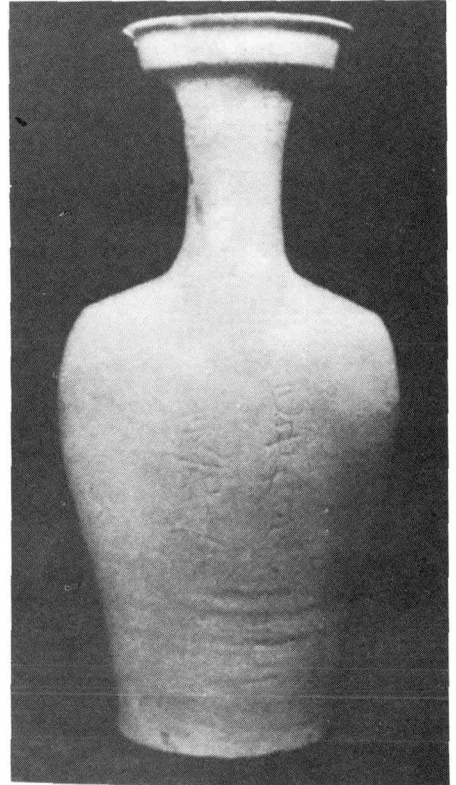
(圖 2) 淳化四年銘항아리 梨花女子大學校 博物館



(圖 3) 永慶陵東壁畫 四季圖(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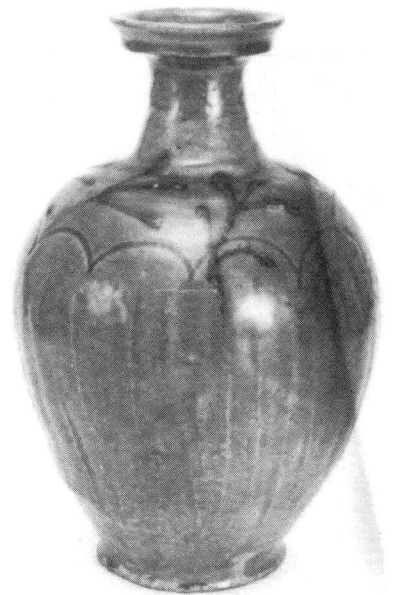
(圖 5) 癸丑銘青磁바릿대 國立中央博物館



(圖 4) 己丑銘青磁盤口瓶



(圖 6) 三陟郡 三和里 古墳出土遺物 國立中央博物館



(圖 7) 青磁鐵繪草文盤口치마瓶
國立中央博物館



(圖 8) 青磁師子鈕蓋水注・承盤 國立中央博物館



(圖 9) 青磁 牡丹唐草碗 國立中央博物館



(圖 10) 青磁象嵌蓮唐草文詩銘瓢形瓶
國立中央博物館



(圖 11) 青磁象嵌蒲柳水禽文淨瓶
澗松美術館



(圖 12) 青銅銀入絲蒲柳水禽文淨瓶
國立中央博物館



(圖 13) 青磁象嵌寶相華文대접 京畿道 開豐郡
文公裕墓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圖 14) 青磁象嵌荔枝文대접 京畿道 長湍郡 智陵出土
國立中央博物館



(圖 16) 青磁牡丹文圓瓦當 全南康津郡大口面 沙堂里 出土
國立中央博物館



(圖 15) 青磁象嵌雲鶴文梅瓶 澗松美術館



(圖 17) 青磁象嵌蒲柳水禽文「庚午」銘大鉢
國立中央博物館



(圖 18) 青磁象嵌 蓮池水禽文扁壺 國立中央博物館



(圖 19) 青磁象嵌金彩樹下猿文扁壺
國立中央博物館



(圖 20) 青磁象嵌唐草文「正陵」銘大鉢
國立中央博物館



(圖 21) 青磁象嵌柳文「乙酉司醞署」銘梅瓶
國立中央博物館



(圖 22) 青磁象嵌線文大접 令傳寺址三層石塔發見
國立中央博物館